

정 총리 “LH 투기 국민께 사과...일말의 관용 없다”

토지거래 제한·부당이익 환수 확인된 위법행위 엄중조치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선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고,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제법 방지 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10일 긴급 관계기관회의를 소집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장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해 검경 간 수사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검경 협력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주축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LH 투기 의혹 수사를 담당하기로 한 가운데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도 경찰과 협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지원 체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번 주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이번 주 일요일에 종료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논의를 거쳐 오는 12일께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 있다. /연합뉴스

광주 대형 치과병원·공공기관서 확진자 발생...긴급 역학조사

광주 대형 치과병원과 중소기업 지원 기관 입주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에 있는 모 치과병원에서 실습 중인 학생이 전북 확진자와 접촉으로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은 수업·실습 등을 통해 다수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은 긴급히 현장 조사를 벌였다. 모두 269명이 진단 검사를 받

아 12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당국은 치과병원 전 직원을 상대로 증상 유무를 파악하고 환자 명단도 확보해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직간접으로 접촉한 336명 가운데 110명은 자가 격리하도록 했으며 226명은 수동 감시한다.

북구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시설에서는 입주 업

체 직원이 지난 7일 확진됐다. 해당 업체는 직원이 3명뿐이지만 확진자가 인근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돼 검사 범위가 넓어졌다. 진단검사 결과 구내식당 이용자 등 248명 중 234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당국은 위치정보 시스템(GPS)과 폐쇄회로 TV 분석 등 감염원 파악을 위한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美 백신 접종자 노마스크’ 권고에 정부 “국내상황 보고 판단”

“거리두기 등 질병청과 논의 필요”

정부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국내 상황을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브리핑에서 “각국 방역 수칙이 다르고, 국민의 방역 민감성에도 차이가 있다”며 “예방접종을 미리 시행한 해외 국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외국과 국내의 방역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다”면서도 “백신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조절)에 대한 전반적인 인내가 이뤄질 것이며, 추후 질병관리청과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CDC는 백신을 맞은 뒤 2주가 지난 접종자에 대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다른 접종자와 만날 수 있으며, 중증을 앓을 위험성이 낮은 경우라면 비접종자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채 만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CDC에서 지칭하는 백신 접종자는 2회 이상의 접종이 완료된 ‘완전 접종자’를 지칭하며, 이들이 마스크 없이 만날 수 있는 대상도 가구원 등 같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제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다만 국내는 이제 막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단계로, 현재까지 2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사례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예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진행 상황을 분석해 관련 지침을 조금씩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시·도지사 평가 1위

“성과와 소통...에너지 신산업 육성 최선”

“도민 자부심 유지하도록 노력”

김영록(사진) 전남지사가 지난달 시·도지사 평가 조사에서 다시 1위로 올라섰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줄곧 최상위권에 자리한 이유에 대해 “도민들의 후한 인심과 긍정적인 마인드 덕분”이라고 겸손했다.

하지만 과거 전남지사들의 순위가 중하위권을 맴돌았다는 점에서 김 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장기간 호평은 이례적이다.

전남도의 현안에 대해 성과를 내며, 쉬지 않고 농어촌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해온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9일 “취임 이후 성과를 내려고 꾸준히 노력했다”며 “아직도 여전히 미흡하지만 10년 이상 묵혀 있던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현안을 해결했고, 한전공대 유치와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주춤하지만 ‘관광 전남’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관광하기



김 지사는 “정주여건이 뛰어나지도 않는데, 도민들이 전남을 살기 좋은 곳이며 살 만한 곳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전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22개월 연속 1위다)”이라며 “정부에 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하면서 도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좋은 성과를 내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가전국민에게각인됐다. 전남도민들에게는 기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도민들의 자부심을 실제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이끄는 것을 남은 과제로 꼽았다.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 신청하세요”

광주시, 25일까지 참여자 모집...만19세 이상 39세 이하 10팀

광주시가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회관의 현재와 미래를 밝혀줄 청년창업자를 찾는다.

광주시는 “10일부터 25일까지 공유재산 활용로컬창업 부분 청년창업자 발굴을 위한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시민회관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10팀이다.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메이커스(콘텐츠 상품 제작) ▲미디어(영상, 미디어 콘텐츠) ▲문화(문화기획, 커뮤니티 서비스) ▲F&B(식음료 개발) 등 4개 분야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 후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현장답사, 1차 제안서 발표 및 전문가 멘토링, 2차 제안서 발표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창업자는 창업 전반의 교육프로그램, 창업지원금, 분야별 창업 공간 및 사무(공유)공간 등 다양한 창업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업프로그램 교육과 전문가 1대1 멘토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성을 가진 아이템으로 만드는 ‘창업 인큐베이팅’도 적극 지원할 예정

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양식을 내려 받아 오는 25일까지 이메일(lenaseol02@groupps.kr)로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신청하면 된다.

김영선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50년 역사성과 공간적 가치를 지닌 시민회관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투자 경기·수도권 20년 노하우

법적보장.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주정운(380813-XXXXXX)
• 최후주소 : 여수시 광무2길 10 (영무동)

피상속인 망 주정운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법원 순천지원 2021년단102호로 신청하여 2021년 3월 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3월 10일

• 상속인 : 황김동(590224-XXXXXX)
여수시 신소로 72-28, 5동 101호 (신기동, 신화아파트)

• 신고기간 : 2021. 3. 10. ~ 2021. 5. 19.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황김동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강호인(660502-XXXXXX)
• 최후주소 : 여수시 미평로 77, 101동 1407호 (미평동, 주공아파트)

피상속인 망 강호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법원 순천지원 2021년단98호로 신청하여 2021년 3월 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3월 10일

• 상속인 : 1. 이윤희(670618-XXXXXX)
2. 강연화(950610-XXXXXX)
1.2의주소 :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129번길 20, 202호(용정동)

• 신고기간 : 2021. 3. 10. ~ 2021. 5. 19.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이윤희의 주소

산행안내

3월14일(일)

▲광주K산악회 3월14일(일) 경북 영안군 일월면&일월 산 6920

행, 염주체육관 06:30, 동아병원 06:35, 롯데백화점 06:40, 광주역 06:45, 문예후문 06:55, 비엔주차장 07:00 * 다음카페 광주K산악회 ☎ 010 7794 6920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악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중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 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대지급매

위치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면적 2,816㎡(853평)

금액 71억

(부동산 중개인 사절합니다)

문의 010-6432-5070